



KOREAN B – HIGHER LEVEL – PAPER 1
CORÉEN B – NIVEAU SUPÉRIEUR – ÉPREUVE 1
COREANO B – NIVEL SUPERIOR – PRUEBA 1

Thursday 8 May 2003 (afternoon)
Jeudi 8 mai 2003 (après-midi)
Jueves 8 de mayo de 2003 (tarde)

1 h 30 m

TEXT BOOKLET –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booklet until instructed to do so.
- This booklet contains all of the texts required for Paper 1 (Text handling).
- Answer the questions in the Question and Answer Booklet provided.

LIVRET DE TEXTES –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e pas ouvrir ce livret avant d’y être autorisé.
- Ce livret contient tous les textes nécessaires à l’épreuve 1 (Lecture interactive).
- Répondre à toutes les questions dans le livret de questions et réponses.

CUADERNO DE TEXTOS –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e cuaderno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te cuaderno contiene todos los textos requeridos para la Prueba 1 (Manejo y comprensión de textos).
- Conteste todas las preguntas en el cuaderno de preguntas y respuestas.

본문 A



현장취재

김기현 344

소련해체 10년, 싹트는 '붉은 제국'의 향수

국민 대다수가 옛 소련을 그리워한다. 레닌과 스탈린이 다시 위대한 인물로 돌아왔다. 대제국의 해체 후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심층탐구 **한국인의 체질**

암 잘 걸리는 사람 따로 있다

안영배 516

- 사상의학에서 64체질론까지 ● 아토피는 태양인 체질이 잘 걸려 ● 지문으로 진단하는 북한의 체질분석
- 체질 알면 성격과 운명 바꿀 수 있다 ● 체질설로 접목되는 동서의학



전영우 교수의 숲이야기

532

숲향기 숲빛깔 숲소리 찾아 떠나는 여행

'韓流 비즈니스' 주역 김운호의 중국체험

이형삼 458

“韓流 대박? 중국인이 먼저 몸담게 하라”

韓流 열풍은 유연히 찾아든 행운이 아니다. 중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틈새시장을 파고들어 전방위 마케팅을 펼친 결과다. '哈韓王' 김운호가 들려주는 韓流 비즈니스 테크닉



9월의 가수 조성모

임진모 570

'통산 1000만장' 신화에 도전하는 '노 모어 러브'

9월이면 나타나는 만능 엔터테이너. 최근 신곡을 발표해 또 다시 대형사고를 칠 것 같은 발라드 황제의 음악세계와 진정한 아티스트로 변신하기 위한 '홀로서기'

스포츠취재

메이저리거 김병현 스토리

송재우 558

강자에게 더 강한 애리조나의 '작은 거인'



이색인물



박찬기 고려대 명예교수

이계홍 546

컴퓨터책 집필하는 74세 괴테연구가

현장보고

세계적 허브공항, 프랑스 드골공항의 경쟁력

이정훈 496

- 공항 속 호텔 ● 박람회 천국 ● 사통팔달 고속철

대변혁의 교육현장 ⑥ 동명정보대학교

김기영 424

디지털로 중무장한 IT교육의 신흥메카

전교생이 '컴도사', 대한민국 최고의 슈퍼컴퓨터가 버티고 있는 막강 디지털 파워. 지방대의 한계를 극복한 동명정보대의 경쟁력의 비밀은.

본문 B

2001년 2/1/2001

H 병원 Q&A

Q 병원식사는 왜 맛이 없나

입원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병원에서 먹었던 식사가 무척 맛이 없었다고 기억한다. 가격이 싼 것도 아닌데, 병원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은 특별히 음식 솜씨가 없는 걸까?

병원밥이 맛 없는 이유는 첫째 싱겁기 때문이다. 권장량만큼만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우리 나라 사람들이 평소에 섭취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적다. 우리가 그만큼 짜게 먹는다는 뜻이다.

두 번째 이유는 환자들의 입맛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질병들이 식욕과 미각을 모두 감소시킨다. 또 입원하면 운동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뭉 먹어도 맛이 없기 마련이다.



어쩌다 남은 환자용 식사를 먹어본 사람들이 “병원밥이 아주 형편없지는 않다”는 상반된 평가를 내리는 것도 이런 이유다.

A 환자미각 떨어지고 가정식보다 싱거워

더욱이 여러 종류의 ‘치료식’을 먹어야 하는 환자는 더 괴롭다. 칼로리와 영양 성분을 따져 만들어지는 치료식이 보통 음식보다 맛있을 확률은 거의 없다.

단체 급식이란 것이 원래 맛이 없기 마련인 데다 이런 조건들이 더 붙으니 병원밥은 맛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식사 제한이 없는 환자들은 뭐든지 잘 먹는 것이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식사 제한이 있는 경우는 되도록 병원밥을 먹으며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좋고, 꼭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의사에게 미리 물어봐야 한다.

/박재영·의사·청년 의사 편집주간

본문 C

한글날에 생각해 보는 사이버 은어

a. 오늘 (9 일)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여 반포하신지 꼭 555 돌이 되는 날이다. 한글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글에 대해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있다. 외국의 학자들도 한글처럼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문자가 없을 것이라고 극찬할 정도이다.

b. 지금 우리사회 곳곳에서는 한글날에 즈음하여 우리말 살리기 운동이 한창이다. 특히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등 3대 인터넷통신 동호회에서는 급속도로 번져가고 있는 ‘인터넷 말투’가 우리말과 글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여기고, 이를 막기 위해 <인터넷상의 우리말 살리기 네티즌 운동>을 펴고 있다. 청소년들이 주로 찾고 있는 인터넷동창회 사이트인 다모임 (www.damoim.net)도 청소년문화사이트인 아이두넷 (www.idoo.net)과 함께 <온라인상의 언어파괴는 이제 그만!>이라는 주제로 올바른 우리말 쓰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c. 사실 PC 통신이나 인터넷상에서의 언어파괴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른바 사이버은어는 90년대 중반 PC 통신을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싹트기 시작했다. 이제는 네티즌이 아니더라도 잘 알고 있는 ‘방가방가’ (반갑습니다), ‘안나세요’ (안녕하세요) 등의 말은 당시 비싼 통신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만들어낸 축약어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글파괴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있었던 셈이다. 그러던 것이 네티즌의 호기심과 창작정신(?)이 서로 어울려 ‘안대’ (안돼), ‘시로’ (싫어), ‘저나’ (전화), ‘섬’ (시험), ‘ 쌤쌤’ (재미있었다), ‘담탱이’ (담임선생님)와 같은 표현법이 등장하면서 PC 통신상의 언어파괴 및 변질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네티즌들은 이같은 ‘인터넷 말투’ 또는 ‘사이버은어’의 사용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지금도 지속적·경쟁적으로 신조어를 만들어 내고 있다. 사이버은어를 쓸 줄 모르면 왕따 당하는 것은 물론이다. 90년대 후반 들어 네티즌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인터넷을 통한 채팅이 생활화되면서 사이버은어가 생겨나더니 이제는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를 정도로 파괴돼 가고 있다. 이 때문에 네티즌은 ‘외계어족’이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이다. 사이버은어는 이제 네티즌들만이 알아 볼 수 있는 정체불명의 언어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d. 사이버은어가 처음 나타날 때는 ‘속도’때문이었다. 컴퓨터에서의 대화, 즉 채팅은 속도를 생명으로 하는데 또박또박 글쓰듯이 해서는 안 되고 마치 말하는 듯한 속도로 자판을 두드려야 한다. 그래서 단어를 줄인 축약어를 만들거나 복잡한 받침을 피하고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것이다. 자판에서 손이 가기 쉬운 글자를 쓰기도 한다. 실제로 자판을 쳐보면 <~해요>보다는 <~해여> 라고 쓰는 것이 훨씬 빠르고 편하다.

e. 인터넷상의 언어파괴현상에 대해 많은 이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긍정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부정론자들은 인터넷에서의 언어파괴현상은 결국 세대간의 괴리감 형성은 물론 또래간 의사소통에도 장애를 일으켜 국가적인 위협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은어들이 이제는 실생활에도 버젓이 쓰이다 보니 세대간의 의사소통이 힘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지나친 언어파괴나 변질이 서로간의 의사소통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도가 되어서는 언어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은어가 정보화사회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며, 상대방의 신분이나 기분 등과는 관계없이 비속한 사이버은어를 씌으로써 온라인상의 예절이 실종될 우려도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f. 긍정론자들의 생각은 좀 다르다. 네티즌들이 인터넷에서 축약어나 은어를 사용하는 것은 보다 빠른 정보를 (X 교환하다) 창출된 새로운 언어문화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군대나 건설현장, 인쇄 분야 등 특정한 조직이나 법률가나 의사 등 전문가집단에서 나름대로의 은어가 (30.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31. 있다) 사이버은어 역시 인터넷 공간에서 쓰이는 네티즌들의 고유언어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사이버문화연구소장 민경배씨 같은 이는 통신언어는 ‘글’이 아니라 ‘말’이기 때문에 “맞춤법을 형클어뜨리고 문법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말해서는 안된다는 (32. 이색적이다) 주장을 펴고 있다. 네티즌들이 채팅을 할 때 모니터상에는 글이 나타나지만 사실은 자신의 말을 그대로 (33. 옮겨놓다) 것이기 때문에 글이 아니라 (34. 말이다) 것이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잘 정제되어 있어야 하는 글과 달리 (35. 비문법적) 사용되는 말에 속하는 통신언어를 두고 지나치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g. 이런 주장이 (36. _____) 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37. _____) 이라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그것이 아무리 시대상을 반영하는 새로운 하위문화라고 하더라도 우리말이나 글의 정체성을 손상시키는 일이라면, 이를 (38. _____)하거나 걸러야 마땅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제 네티즌들은 생각해야 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39. _____) 현상이 문화발전의 한 단계이냐, 아니면 새로운 환경이 빛고 있는 일시적인 (40. _____)이냐를 분별해야 한다. 언어란 그것이 비록 유행어라고 할지라도 (41. _____) 되면 고착언어로 자리잡게 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지금 즐겨 쓰고 있는 사이버은어가 관용어로 굳어져도 좋은지를 네티즌들은 판단해야 한다.

본문 D

1.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2.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A).....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 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3.

언젠가는 나도 활활 타오르고 싶은 것이다
나를 끝 닿는 데까지 한번 밀어붙이고 싶은 것이다
타고 왔던 트럭에 실려 다시 돌아가면
연탄, 처음으로 붙여진 나의 이름도
으깨져서 나의 존재도 까맣게 몽개질 터이니
죽어도 여기서 찬란한 끝장을 한번 보고 싶은 것이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뜨거운 밀볼 위에
지금은 인정사정 없이 차가운, 갈라진 내 몸을 얹고
아래쪽부터 불이 건너와 옮겨 불기를
시간의 바통을 내가 넘겨 받는 순간이 오기를
그리하여 서서히 온몸이 별정계 달아오르기를
나도 느껴 보고 싶은 것이다

(B).....